'12년만의 올림픽 본선진출' 여자농구대표팀이 불안한 이유

몰빵농구·변칙수비, 본선서 안 통한다

박지수 체력 우려…'센터 보강' 절실
'지역방어+맨투맨' 많은 활동량 문제
한정된 자원…경기운영의 묘 살려야

한국 여자농구 대표팀이 목표였던 2020도쿄올림픽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막을 내린 도쿄올림픽 여자농구 최종예선에서 1승 2패로 3위를 차지해 2008 베이징올림픽 이후 12년 만에 올림픽 본선 무대를 밟게 됐다. 올림픽 본선에서는 최종 예선보다 더 강한 상대들과 만난다. 이번 대회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해야만 다가올 올림픽 본선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런 만큼 대표팀 앞에 놓인 과제가 산적하다. 이번 대회를 결산할 대한농구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오갈지 주목된다.

한국 여자농구대표팀이 9일(한국시간) 베오그라드에서 벌어진 2020 도쿄올림픽 최종예선에서 올림픽 본선 진출을 확정지은 뒤 미소 짓고 있다. 여자농구대표팀은 목표로 했던 올림픽 본선 무대에 12년 만에 서게 됐지만,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 베오그라드(세르비아) | AP뉴시스

●한정된 자원의 극대화

현재 구성된 대표팀에서 더 추가될만한 전력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다. 최종예선 영국과의 경기에서 이문규 감독(64)이 단 6명만 활용하는 이른바 '몰빵' 농구를 하면서 결과물을 얻었지만 올림픽 본선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통할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 영국보다 더 전력이 강한 팀들이 즐비한 올림픽 본선이다.

한정된 자원으로 팀을 운영해야 하지만 취약 포지션으로 꼽히는 센터만큼은 반드시 보강이 이뤄져야 한다. 박지수(22·198cm)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다른 국내 센터들의 경우 기량 차가 극명하다. 그러나 박지수 한 명만으로 올림픽 본선 스케줄을 버텨내긴 힘들다. 다소 기량이 떨어지는 수비형 선수라도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선택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술적인 고민도 절실

한국은 최종예선에서 높이가 좋은 국가들을 상대로 지역방어와 맨투맨을 가미한 수비를 선택했다. 2-3 혹은 1-3-1 지역방어를 기본으로 해 대인방어를 가미하는 변칙 수비였다. 분명히 효과는 있었다. 하지만 경기 내내 지속적으로 이러한 수비 전술을 펴는 부분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 상대에게 외곽슛을 많이 허용했다는 단점이 드러나서가 아니다.

많은 활동량이 동반되는 수비이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에게 체력적인 부담이 가중된다. 팀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갖고 있는 박지수가 코트 중앙에서 코너까지 빈번하게 움직이는 이 수비를 경기 내내 펼치기엔 체력 부담이 너무 크다. 박지수뿐이 아니다. 신장의 열세로 공수에서 모두 많은 활동량이 필수인 선수들 모두 체력적으로 빨리 소진되는 모습을 드러냈다. 의지와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다. 전술적인 고민도 필요하지만 경기 상황에 맞는 경기 운영의 묘를 살릴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KBL 최초 20-20 허훈, MVP 굳히나?

KGC전 24점·21어시스트 대기록
수상때는 사상 첫 부자 MVP 탄생

MVP(Most Valuable Player)는 말 그대로 리그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수'를 뜻한다. 개인 기량은 물론이고 팀을 승리로 이끄는 최고의 선수에게 주어지는 영예로운 상이다.

부산 KT 허훈(25)은 그런 의미에서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에서 정규리그 MVP에 가장 잘 어울리는 선수다. 허훈은 9일 부산에서 벌어진 안양 KGC와의 홈경기에서 24점·21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에 91-89의 승리를 안겼다. 그는 경기를 지배했다. KBL 역사상 한 경기에 20점·20어시스트를 동시에 기록한 선수는 허훈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9일 국내선수로는 처음으로 30점·15어시스트를 작성한 전주 KCC 이대성(당시 울산 현대모비스 소속)과 함께 이번 시즌 가장 강렬한 기록을 남겼다.

기록상에서도 허훈은 압도적이다. 부상으로 8경기를 결장했지만, 33경기에서 평균 15.4점(7위)·7.2어시스트(1위)를 기록했다. 국내 선수가 팀 내 득점 1위인 팀은 10개 구단 중 KT가 유일하다. 동료들 사이에서 괜히 '단신 용병'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다.

MVP 수상은 팀 성적도 간과할 수 없는데, 최근에는 소속팀 KT의 분위기가 좋다. 4라운드 초반까지만 해도 KT는 중하위권을 맴돌고 있었지만 시즌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경기력이 나아지고 있다. 최근 3연승과 함께 21승20패가 되면서 10일 현재 순위를 5위까지 끌어올렸다. 4위 KCC(22승 18패)와의 격차가 1.5경기 밖에 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경기 결과에 따라 추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허훈은 압도적인 퍼포먼스, 팀 성적까지 따르는 가운데에 KBL 사상 첫 한 경기 20점·20어시스트 기록은 'MVP 굳히기'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허훈이 정규리그 MVP를 수상할 경우, 프로농구 사상 첫 부자 MVP가 탄생한다. 허훈의 부친인 허재 전 국가대표팀 감독(55)은 1997~1998시즌 플레이오프 MVP를 수상한 바 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KT 허훈은 2019~2020시즌 남자프로농구 MVP에 가장 잘 어울리는 선수다. 특히 9일 KGC전에서 24득점·21어시스트로 KBL 역사상 최초로 한 경기 20득점·20어시스트를 기록하며 MVP에 한발 더 다가섰다. 사진제공 | KBL

"선형이 형 없어도 SK는 강해" 문 감독 기대에 응답한 최성원

SK 최성원

서울 SK 문경은 감독(49)은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정규리그 개막 이전부터 "이번 시즌 최성원을 잘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2017년 신인드래프트에서 2라운드 3순위로 SK에 입단한 최성원(25·183cm)은 2018~2019시즌까지 두 시즌 동안 정규리그 출전은 7경기에 그쳤던 선수다. 주로 D리그에서 활약했다. 문 감독의 기대처럼 확 달라질 수 있을까에 의문부호가 달렸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최성원은 프로 3년차에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데 성공했다. 10일까지 이번 시즌 39경기에 출전해 평균 15분여를 뛰며 4.0점·1.2리바운드·0.9어시스트를 기록 중이다. 수치상으로는 평범한 식스맨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팀 내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뽐낸다. 많은 활동량으로 상대 가드를 압박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공격에서는 2점슛 성공률 61.18%, 3점슛 성공률 35.7% 등 정확한 슈팅 능력으로 팀에 보탬이 되고 있다.

특히 주전 김선형이 부상으로 전력에서 제외된 최근 2경기에서 활약상이 매우 좋았다. 7일 창원 LG전에서는 29분여를 뛰며 3점슛 3개 포함 11점을 올렸다. 9일 서울 삼성전에서는 5점에 그쳤지만 수비에서 최근 상승세에 있는 상대 가드들과의 대결에서 전혀 밀리지 않았다. SK가 부상중인 김선형과 최준용 없이 2연승을 거두는데 큰 힘이 됐다.

최성원은 "(김)선형이형, (최)준용이형이 없어도 SK가 강하다는 걸 보여줘 만족한다. 부담이 적지 않았는데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하더라. 공격보다 다른 부분에서 보탬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꾸준한 활약을 다짐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식당에서 소스하나로 요리를 한번에~ 주방장이 필요없는 만능소스
매콤조림소스 2kg & 멸치육수2kg -조림류, 볶음류, 탕류, 부대찌개 등등 어디에도 어울리는 만능소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어디다 하소연할 곳도 없는 일선 식당이나 외식사업에 힘들어하는 사장님들께 가정의 주부님들께 요리의 다변화와 간편하고 손쉬운 메뉴의 다양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불황극복에 가장 적합한 품목으로 외식사업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멸치육수'와 '매콤조림소스'를 추천한다.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 수수방관한다는 것은 생업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적합한 새로운 컨셉의 아이템으로 변화를 주어야 한다. 깨진 항아리에 언제까지 물 붓기를 할 것인가? 변화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만나야 할 때이다.

무엇보다 아이템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계절을 타지 않으면서 남녀노소 구분 없는 품목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는 아이템이라면 일단은 기본은 갖고 시작하는 것이다. 외식사업의 3대 재앙이라는 조류독감, 광우병, 구제역으로 무관한 품목이 있다. 지역에 상관없이 계절에 상관없이 국민 음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찌개류와 조림류에 적합하고 어느 요리도 맛의 깊이를 낼 수 있다. 어제 먹었어도 오늘 다시 먹어도 질리지 않으면서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감칠맛은 가족외식으로 직장인들 회식 메뉴로 친구들과 술자리에서도 늘 한결같은 맛으로 선택받는 메뉴로 인식되고 있다. 물론 맛이 선결되어야 하지만 그 부분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경쟁업체들 가운데, 다른 곳들과는 차별화된 맛을 구축하고 경쟁력까지 높일 방법을 찾는다면 바로 소스의 맛부터 제대로 잡아야 한다. 안전한 먹거리를 추구하는 만큼 엄선된 식자재만을 사용해 내 가족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소스를 판매하는 이곳은 대량생산은 물론 소량생산, 소포장 납품도 가능하다. 현재 서울·경기는 물론 부산 ,해남, 대천 등 전국맛집에 '멸치육수'와 '매콤조림소스'를 납품 중이며, 업종 변경 및 추가품목을 원하는 곳이라면 자세한 견적문의 및 제품문의는 아래 번호로 연락하면 친절히 답변해 주고 있다.

매콤 명태코다리 낙지조림

명태코다리 등갈비조림

감칠맛 나는 육수와 매콤소스가 어우러져 요리의 간편함을 느낄 수 있는~ 매콤조림소스·멸치육수
문의전화 02) 777-0322
http://www.용대리명태마을.com